

# 2001년 조사료 총결산



서 성  
축기연 축산연구원 농학박사

**슬** 해의 우리나라 조사료 산업도 과거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그리고 다른 축산분야와 같이 어려운 한 해가 아니었는가 한다.

연초에 광우병 사건과 연계해 수입 조사료와 황사에 대한 구제역 발생가능 운운, 수입 조사료에 대한 검역 및 위생조건 강화, 그리고 양축의 편의성만 추구하는 일부 농민들의 수입 조사료에 대한 선호도 증가 등...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꾸준히 자급 조사료를 생산하여 양축을 하는 농가도 증가하고 있고, 농림부에서는 국내 조사료의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올해 처음 시범사업으로 농지를 이용한「대단위 사료작물 재배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구기관에서는 담리작을 이용한 양질 조사료 생산체계 확립 기술개발 등을 통해 조사료 자급기반을 다지고자 노력한 한 해가 아닌가 기억된다.

연초에 광우병 사건과 연계해 수입 조사료와 황사에 대한 구제역 발생가능 운운, 수입 조사료에 대한 검역 및 위생조건 강화, 그리고 양축의 편의성만 추구하는 일부 농민들의 수입 조사료에 대한 선호도 증가 등...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꾸준히 자급 조사료를 생산하여 양축을 하는 농가도 증가하고 있고, 농림부에서는 국내 조사료의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올해 처음 시범사업으로 농지를 이용한「대단위 사료작물 재배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구기관에서는 담리작을 이용한 양질 조사료 생산체계 확립 기술개발 등을 통해 조사료 자급기반을 다지고자 노력한 한 해가 아닌가 기억된다.

## 1. 2001년도 조사료 생산기반

2001년도 현재 우리 나라 초식가축용 조사료 생산기반은 126천ha(추정)로 매우 취약한 상태이며, 초지 51천ha, 발사료작물 31천ha, 담리작 사료작물 44천ha로, 지난 해 대비 천ha가 증가하였으나 전반적으로 담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표 1>

축우사육에 있어서 조사료와 농후사료의 공급비율도 지난해 대비 별 다른 차이가 없을 것으로 추정되어 목초와 양질 사료작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30% 정도에 불과하고, 벧짚이 50% 이상을 점유하며, 수입 조사료 물량은 계속하여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표 2>

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사료작물 중에서는 옥수수과 호밀이 생산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다음이 수수×수단그라스,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연맥(귀리), 유채 순이며, 조사료 이



〈표 1〉 조사료 생산기반 (천ha)

구 분	1980	1990	1995	1998	1999	2000	2001(추정)
○ 초지관리 면적	48	90	66	56	54	52	51
○ 사료작물 면적	78	181	164	101	87	73	75
- 밭	40	438	140	38	40	26	31
- 답리작	38	43	24	63	47	47	44
계	126	271	230	157	141	125	126

주) 농림부 축산국(2001)

〈표 2〉 축우사육에 있어서 조사료와 농후사료 공급현황 (천톤)

연도	농후사료 (A)	조 사 료					계 (A+B)	조사료 비율(%)
		초 지	사료작물	벼 짚	수 입	소 개(B)		
1990	3,457	594	2,238	2,615	60	5,507	8,964	61.4
1997	6,453	413	583	2,184	256	3,436	9,889	34.7
1998	5,438	392	874	2,188	172	3,626	9,064	40.0
1999	5,655	376	794	2,203	342	3,715	9,370	39.6
2000	5,231	364	628	1,801	599	3,392	8,623	39.3

주) 농림부 축산국(2001)

〈표 3〉 수입 조사료 도입량

구 분	1987	1990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추정)
물량(천톤)	8	63	170	212	256	172	342	599	594

주) 농림부 축산국(2001)

용방법은 사일리지 조제 비중이 다소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 2. 수입 조사료 도입량 지속 증가와 검역기준 강화

### 가. 조사료 도입량 증가

우리 나라는 매년 수십만톤의 조사료를 큐브나 압축건초 등의 형태로 수입하고 있으며(화분과 건초, 화분과 짚, 알팔파 건초, 알팔파 큐브, 갈대 등) 도입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599천톤의 조사료를 수입하였으며, 올해도 예정 도입물량(512천톤)을 다소 상회한 594천톤이 수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표 3〉 그리고 일부에서는 사일리지의 도입도 시도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의 조사료 수입국은 주로 미국과 캐나다이며, 일부 중국, 인도네시아 등이 있는데, 지난 해 구제역 사건 이후 중국을 포함한 동남 아시아권의 수입물량은 감소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미국 등 북미의 점유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 나. 수입 조사료에 대한 검역 및 위생조건 강화

지난해 구제역 발생이후 수입 조사료(특히 중국)에 대한 안전성 우려가 커지면서 구제역 청정국 지위의 지속적인 유지 및 수

입자 민원발생 해소 등을 위해 검역이 강화되고 소독 실시 등 위생조건이 까다로워지고 있다. 올해 새로 제정된 농림부 고시는 지정 검역물로 분류된 조사료의 수입조건과 검역제의 규정 등을 명시하였다.

## 3. 조사료 생산 시책사업 추진

### 가. 농지를 이용한 대단위 사료작물 재배단지 조성

#### (1) 추진배경

농림부에서는 조사료 자급률을 높이고 친환경 축산기반을 구축하고자 유휴 농지(논, 밭 기타 유휴지 등)를 이용한「대규모 사료작물 재배단지 조성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시·군이 추진 주체가 되고, 축협(낙협)이 주관하도록 하며, 농촌진흥청과 농협 등에서도 대농민 교육과 기술지도를 담당하고 있다.

다만 올해는 처음 시행과정에서 계획수립과 추진일정 확정이나 다소 늦어져 파종작업이 지연된 농가가 있을 수 있겠으나 내년부터는 적기 파종, 적기 수확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유통 시스템을 현지 실정에 맞도록 체계화한다면 경종농가도 축산농가도 다같이 살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2) 정부지원내역

올해 이 사업이 처음 시행되는

만큼 일단은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도 정부보조는 지속될 것으로 추정된다. 지원내역은 ha당 873천원으로 자재대 423천원(종자대 160, 비료대 263천원)와 농지임차료 450천원(평당 150원)을 포함한 금액이다.

**(3) 사업 현황**

조사료 재배단지 42개소로 도별로는 경기 11, 강원 6, 충북 1, 충남 8, 전북 4, 전남 5, 경북 2, 경남 4, 제주 1 개

소이다.

1개 단지의 규모는 1개 지역이 10ha 이상으로 2~3개 지역을 합한 면적은 30ha 이상인 곳으로 선정하였으며 배수가 어느 정도 양호하고 농기계작업이 지속적으로 가능한 지역을 선정하였다.

올해 대상 사료작물 재배면적은 총 1,470ha로(표 4), 이 중 논이 872 ha(59%), 밭이 293ha(20%), 간척지가 305ha(21%)를 차지하고 있다. 재배작목별 종자 신청량은 호밀

이 228,960kg으로 면적대비 80% 정도로 대부분을 점유하며 <표 5>, 보리가 17,300kg(6%), 이탈리아이 8,780kg (13%), 귀리가 4,020kg(1%)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나. 기존 시책사업**

조사료 생산사업은 과거부터 보조와 융자로 상당한 지원이 있어 왔으나 이제는 보조가 융자사업으로 많이 변경되어(특히 중요한 조사료 생산기반조성과 농기계 장비구입 사업) 조사료 생산확대 의욕을 저하시키고 있다.

(1) 목장 진입도로, 목장내 도로개설, 용수개발, 전기시설, 부지정리, 목책시설 등 기반조성 사업과, 트랙터나 부속 농작업기, 사일로 시설, 곤포사일리지 조제장비(원형곤포기, 랩핑기, 적재기) 등 농기계와 장비구입 등은 많은 투자가 필요하나 지원조건은 융자 80%, 자부담 20%로, 앞으로 조사료 생산의 활성화를 꾀하려면 보조사업 쪽으로 방향을 다시 바꾸어야 할 것이다.

(2) 그러나 신규 초지조성과 기성초지 보완사업은 보조 50%, 융자 50%로 변동이 없어 초지조성에는 별 문제가 없으나 조성을 원하는 농가가 별로 많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일반 사료작물 재배는 종자대와 비료대의 50%를 보조해 주

〈표 4〉 대단위 사료작물 재배단지 현황

재배단지 (개소)	재배 면적 (ha)				비율 (%)
	논	밭	간척지	계	
42	872(59%)	293(20%)	305(21%)	1,470	100

〈표 5〉 사료작물별 종자 신청량 및 추정 재배면적 비율

구 분	재배단지 (개소)	종자 신청량 (kg)				계
		호밀	보리	IRG	귀리	
계	42	228,960	17,300	8,780	4,020	259,060
파종량 대비 면적 (%)	-	80	6	13	1	-





〈표 6〉 권역별 답리작 재배 사료용 보리 추천 품종

구 분	보 리 품 종
중부지방	알보리
호남지방	큰알보리, 밀양 92호(겉보리) > 새쌀보리, 내한쌀보리(쌀보리)
영남지방	큰알보리, 알보리(겉보리) > 내한쌀보리, 새강보리(겉보리)

주) 축산연, 호시, 영시(1999~2001)

고 있으며, 벧짚의 암모니아 처리도 기존대로 처리비용의 50%를 보조해 주고 있다.

#### 4. 조사료 생산 연구사업 가. 논을 이용한 답리작 조사료 생산 연구 활성화

연구분야에서는 90년대 후반부터 답리작 조사료 생산에 대해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 농업경영관실, 작물시험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경북대, 고려대 등 여러 연구기관에서 본격적인 연구를 수행하여 지난 해와 올해부터 그 결과가 가시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올해까지 연속된 쌀농사 풍년과 국민들의 지속적인 쌀 소비감소로 인해 휴경 논은 과거에 비해 점차 증가될 것으로 보여져 논을 이용한 양질 조사료 생산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우리도 앞으로는 사료용 보리(표 6) 뿐만 아니라 일본과 같이 사료용 벼 이용에 대한 연구도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이루어진 연구결과물로는 벧짚과 야초의 곤포사일리지 제조방법 연구(고려대, 1999), 조사료 생산 확대방안 연구(농촌

경제연구원, 1999), 낙농경영에 있어서 조사료 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관한 연구(농진청 농업경영관실, 2000), 권역별 답리작 조사료 생산체계 연구(축산기술연구소, 2001) 등이 있으며, 중요한 기술적·정책적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 나. 국내 개발 이탈리아인 라이그라스 첫 종자보급 및 시범재배

국내 처음으로 개발된 추위에 강하고 다수성인「화산 101호」이탈리안 라이그라스(축산기술연구소) 종자를 대량 생산하여 보급하였는데, 이는 종자자급을 위한 첫 시도라고 보여진다.

기존의 이탈리아인 라이그라스가 추위에 약한 단점을 보완하여 재배지역을 경기도까지 확장시킬 목표로 올해 시범적으로 4,000kg 종자를 생산하여 보급하였으며, 농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지를 이용한「대단위 사료작물 재배단지」에도 공급하였다.

앞으로는 이 우수 품종 종자의 대량생산을 위하여 국내여건이 어려우면 국외 적응성을 거쳐 해외에서라도 종자생산을 시도해

야 할 것이다.

### 5. 곤포 담근먹이 조제와 유통 조사료 관심 고조

앞서 답리작 조사료 생산 부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이제는 원형곤포 사일리지 조제기술의 정립과 농기계의 보급증가로 일시 수확과 일시 저장이 가능한 사일리지 조제이용이 정착되면서 벧짚과 같은 부존 조사료 자원, 호밀·보리·이탈리안 라이그라스 같은 양질 사료작물을 생산이용하는 시스템이 점차 정착되면서 조사료의 유통 체계화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조사료 산업도 여차피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생산성 증대와 생산비 절감기술 외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유통·상품화 체계가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정부에서도 조사료의 중요성을 인식한 만큼 환경농업(축산)과 연계, 국토보전 차원에서 획기적인 자급(증산)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양축농민들도 땀을 흘리더라도 우리 조사료는 우리가 생산한다는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

도지를 근간으로 한 농업이야말로 친환경 농업의 지름길이자 국토보전의 근본임을 명심하면서 내년도 조사료 생산의 활성화를 기대해 본다.

〈필자연락처 : 031-290-1747〉